약자 함께한 10년…대사회적 불교 해법 제시









사노위의 지난 10년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시간이었다. 땡볕 아래 몸을 던진 오체투지, 눈보라 속 행진, 끊임없는 기도회는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달래고 고통을 함께한 시간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과제

2012년 모든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시간이었다. 사회의 아픔이 있는 곳이 이들의 법당이요, 사찰이었다.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활동을 실천해 온 사노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12년 노동위원회로 출범, 2015년 실천위원스님 20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확대 개편된 후 노동문제에서 빈곤과 인권활동 등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넓힌 사노위가 다루는 분야는 매우 포괄적이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는 물론이고 인권과 동물생명권(살처분 문제),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이주민, 무연고사망자, 세월호, 성소수자 문제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오고 있다. 매주 최소 1회 이상 현장활동이 이어지며 각 사안별 연대회의까지 포함하면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조계종 종령기구인 사노위는 종단의 대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와도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토록 많은 분야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위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10년 전인 2012년 8월 27일, 사노위 출범식 날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한 발원문에 담겨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사노위의 지난 10년은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종교행위로서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오체투지, 49재를 문화행사에 접목해 대중성을 확보했고 "사회문제 해결은 곧 투쟁"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또 다른 사회운동 형태를 만들었다. 온몸을 구부려 팔꿈치와 무릎, 정수리를 모두 땅에 닿게 하는 오체투지는 불교에서 삼보에 대한 최상의 예법이지만,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지를 강렬하게 피력하는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다가갔다. 이웃종교 성직자들 역시 오체투지에 함께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불교적 예법의 사회화 덕분이다.

여기에 사노위의 꾸준함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충분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10만배 기도와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을 위한 오체투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인양을 위한 끝없는 단식과 철야기도, 1년 넘게 계속된 아시아나케이오 원직복직 촉구 기도회 등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현장에 있었던 스님들의 꾸준함 덕분에 사노위는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0년 간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난 사노위는 이제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내놓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뛰어든 길인만큼, 불교 교리와 사상을 사노위 활동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흔히들 현장에서 말하는 집회와 투쟁이 아닌 오체투지, 기도회, 49재와 추모재 등 불교적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종교적 치유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2012년 출범해 10주년 맞아
인권·노동에서 동물권까지
사회 전분야서 폭넓은 활동

부처님 가르침 사회 현실화
종교행위로 사회여론 만들며
새로운 방향 만들어 내기도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사노위가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좀더 본질적인 문제,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평등사상을 현대인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인식의 전환은 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계승할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불교계가 이토록 현장에서 10년 간 목소리를 냈는지, 불교계 실천행을 넘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왜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현장에 서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게 지몽 스님의 설명이다.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는 불교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 맞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사노위가 종단의 대사회적 기구이자 독립된 기구로서 승격,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의 향후 10년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또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한 양 위원장은 "노동권 뿐만 아니라 인권, 성차별, 환경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해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주요 활동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촉구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 10만배 기도, 5차례 오체투지 및 행진, 7차례 3000배, 회사대표 면담

세월호
■ 특별법 제정 촉구
도철 스님 32일 단식, 6차례의 3000배 기도, 24시간 매일 기도 및 72시간 연속 기도
■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촉구
3차례 오체투지, 미수습자 수습 촉구 10차례 기도 법회, 인양 기원 72시간 철야 기도, 참사 해역 5차례 기도 법회, 7개월간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위한 목포신항 임시법당 설치 후 매일 기도와 집중 기도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000배 기도 및 법회, 5차례 오체투지

스텔라데이지호 해저 탐사 발원
6개월간 매주 2회 외무부 앞 기도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 촉구
6차례 오체투지, 서울역사 108배 등 6차례 기도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부청사, 국회, 각 정당 당사 앞 28차례 격주 기도회, 30km 오체투지 등 3차례 오체투지, 국회 앞 단식 농성장 40여 일 기도회

장기농성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트콜텍, KTX 여승무원 등 장기 농성 사업장 중재 타결, LG트윈타워 기도(매주 5개월), 아시아나케이오 기도(매주 1년 2개월), 영남대병원 기도(매주 6개월)

산재 및 노동자 사망 문제 촉구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한국마사회 문중원 기수, 청주방송 이재학 PD,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 등 산재현장 추모기도, 49재 등

성소수자 권익 향상
반차별문화제, 성소수자 초청 법회, 성소수자 부모님 초청 법회, 성소수자 초청 산사음악회,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초청,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대사회 추모사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3차례 주관(2016년부터 매년 2회 주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매년), 제주 4.3 항쟁 추모제(매년), 효순미선 천도재, 코로나 희생자 추모재

이주노동자 권익 향상
단속과정에서 돌아가신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49재, 1주기 추모재, 법무부 항의 방문 / 캄보디아 속행 노동자 49재, 1주기 추모재 / 여수 출입국 사무소 희생자 추모재 등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과 연대 활동

빈곤
송파세모녀 49재와 추모재(매년), 무연고 사망자 추모재(매년), 단역배우 두 자매 천도재

세계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 및 오체투지, 미얀마 민주 항쟁 희생자 추모 및 민주주의 실현 오체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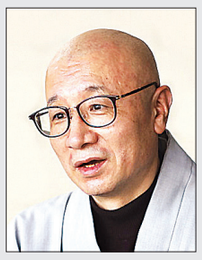
사회적약자 초청 템플스테이
2013년부터 매년 4차례 진행 중

노동자 심리 상담 및 명상 '도반'
2013년부터 운영 중

사노위를 이끄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행복 위해 거리 목탁 되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지몽 스님은 2017년 동국대 대학원(명상심리 상담) 재학 중 도반의 추천으로 사노위에 합류했다. 실천적인 활동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노위에 합류하자마자 부처님 가르침은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 현실에서 구현돼야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몽 스님은 "명확한 목적과 사회의식,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 한 이론적 확신이 없다면 수행자로서 지속해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현장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실현을 추구하는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회고하며 "고통받는 이들은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지인"이라면서 "누구든지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우리는 꾸준히 사회 곳곳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공업중생'이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우리 가족만 행복할 수도 없고, 고통도 나로만 끝나지 않기에 함께 나아가야할 존재라는 것이다. 스님은 "목소리를 내면서 꾸준하게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사회구조적인 공업 역시 조금씩 녹아날 것"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이 녹아난 자리는 분명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몽 스님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환희심과 보람을 느낀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부조리로 고통받는 분들과 거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결방 안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과 보현보살의 행원을 꿋꿋하게 실천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거리의 목탁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지몽 스님은 "큰 깨달음을 체득한 스님의 출연도 중요하지만 사무량심으로 중생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동체대비를 실천할 스님들이 많아야 한다"면서 "사노위의 대사회적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기다리며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약자들에 인정받는 사노위 될 것"

양한웅 집행위원장



양한웅 위원장은 2012년 사노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사노위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사노위 활동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위해 발로 뛰는 양 위원장은 사노위가 노동자가 거리낌 없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사노위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사노위에 대해 "사회활동뿐 아니라 자비정신 실현을 구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활동을 통한 불교적 실천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고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도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 무엇보다 불교를 바로 세우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양 위원장은 항상 거리에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달려가 끊임없는 기도회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체투지를 행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0년간의 시간에서 아쉬움이라면 활동하는 스님의 부족이다. 양 위원장은 "스님들이 현장에 와주시는 것만으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스님들 참여가 늘어나면 노동운동에서 인권, 여성, 장애, 환경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양 위원장이 가진 바람 중 하나는 사노위 만의 작은 공간 마련이다. 양 위원장은 "실천위원스님 대부분이 일정이 있을 때마다 소임을 내려놓고 전국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왕복 12시간을 달려온다"라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실천위원 스님의 휴식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수시로 오가며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도 하는 사노위 만의 공간이 수도권 어딘가에 작게나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9월 추대될 새로운 총무원장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노동위원회가 외연을 확장하며 1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도 불교사회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화 위한 발걸음 지속"

이권수 행정관



2011년 조계종 종무원이 된 이권수 행정관은 2020년 12월, 사노위를 담당하게 됐다. 이 행정관은 "언제부터인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떠올리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면서 "사노위 10여 년을 지켜보며 고민하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사노위 업무를 맡고 제일 먼저 한일을 오체투지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약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노위 담당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행정관은 몸무게가 무려 7kg이나 빠졌다. 수차례 오체투지에 동참하고 각종 사회현장을 뛰어다닌 결과다.

사노위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스스로의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 행정관은 종무원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활동가가 되길 희망한다. 이 행정관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